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신세계 정용진, 반토막 난 이마트 주식 241억원 매입...이유는? (이코노믹리뷰 19.04.08)**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이마트 주식을 추가 매입함. 주가가치 제고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음. 신세계그룹은 5일 정 부회장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차례 매수로 이마트 주식 14만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힘. 이번 매입으로 정 부회장의 주식 수는 274만399주에서 288만399주로 변동됨. 지분율은 9.38%에서 10.33%로 0.5% 증가. 이마트의 주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 지분율이 18.22%, 국민연금공단이 10.10%를 보유하고 있음. 지난해 4월 최고가 29만5000원인 이마트 주가는 현재 17만1500원까지 하락하여 1년 반토막이 남. 실적도 악화일로인데,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가격경쟁력과 편의성면에서 온라인에 밀리고 있기 때문. 이마트도 '초저가'행사를 내걸고 소비자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실적 악화에 자충수가 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이마트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6조4,126억원으로 전년(14조8154억원) 보다 10.8%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절반가량 감소. 올해 1분기 전망도 좋지 않음. 상장법인은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시내면세점 신규 추가 예고, 업계는 '고민' (이코노믹리뷰 19.04.07)**

국내 면세점 업계는 사실상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견제가 있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개정된 전상법의 시행은 파이공들의 면세품 수요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음이 증명.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를 찬성하는 의견으로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하거나 기업 단위 중국인 단체 관광이 때때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제한을 해제하면 중국 관광객 면세점 방문도 그로 인한 각 면세점의 매출도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그러나 면세점 사업권 추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안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첫 번째 불안요소는 바로 아직까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한. 지난해와는 외교적 긴장관계가 분명 달라졌다고는 하나, 중국 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제한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만약 시내면세점 사업권이 늘어난 이후에도 관광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국내 업체들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중국인 면세품 수요가 극히 파이공에 의존적일뿐더러 대기업 면세점 몇 곳을 제외하면 할인이나 프로모션으로 인한 수수료 비용의 지출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 거의 없는 가운데 사업권이 늘어나면 정부나 업계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힘. 여기에 더해 업계는 사업권 추가가 대기업들의 과열된 사업권 획득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면세점 업체들 간의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음

**홈쇼핑 × SNS 스타 = 대박 (서울경제 19.04.07)**

GS샵이 지난 1월 22~24일 인스타그램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선보인 'SNS마켓'이 3일 동안 총 주문 금액 6,000만원을 올림. GS샵은 오는 5월 2차 SNS마켓을 열기로 결정함. 홈쇼핑 업계는 매해 늘어나는 송출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편으로 인플루언서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 수수료는 1조6,000억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홈쇼핑 업계의 인플루언서 기용은 모바일 앱으로 2030대의 관심을 끌어 TV 방송 의존도를 조금이나마 낮추겠다는 계산이 있음. 역대 연봉의 쇼 호스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송 출연료에 바이럴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방송에 필요한 최소 판매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인지도 있는 '대형 인플루언서'는 소수라 홈쇼핑업계는 이들을 모아 모바일에 전문관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 GS샵의 SNS마켓뿐 아니라 지난해 8월 GS샵이 H몰에 문을 연 인플루언서 전용 관 '훗'도 대표적 사례. 론칭 이후 훗은 월 1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꾸준히 올리고 있음.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유명 BJ들이 홈쇼핑 방송에 도전하는 모바일 생방송 '쇼킹 호스트'를 론칭했을 뿐 아니라 가능성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는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 '콘텐츠커머스'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CJ ENM 오쇼핑 부문도 모바일 생방송 플랫폼인 '쇼크라이브'를 강화하고 있음.

##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로드숍들 "면세품 표시해야" (뉴시스 19.04.05)

면세 화장품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면서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5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면세 화장품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SNS 등에 화장품 면세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음. 일부 구매자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경우 '면세용' 표기가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가맹점보다 싼 값에 내놓고 있기 때문. 특히 국내 면세점 시장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 '다이공'(代工)이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이들이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2~5% 정도 마진을 남기고 넘기면 유통업자들은 이를 SNS 등을 통해 정상가보다 싸게 팔고 있음. 다이공은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도매상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입해 화장품 도매시장에 내놓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면세 화장품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자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 출범식을 열고,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주류나 담배처럼 면세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관세청은 다음 주 중 화장품 용기에 면세품 표시 의무화,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

## 110조 원 이커머스 시장...수익성 여전히 '안개 속' (에너지경제 19.04.07)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이 110조 원대의 규모로 성장했지만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수익성 부문에서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를 거둠. 업계 유일의 흑자 기업인 이베이코리아는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9,811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 지난해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 매출이 1조 원대를 넘길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실적. 영업이익은 485억 7,100만 원으로 2017년(623억2,000만 원) 대비 22%(약 137억 원) 감소함. 위메프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이 전년 대비 28.6% 증가한 5조 4,000억 원을 기록. 이는 5년 전 거래액(2013년 거래액 7000억 원)보다 약 8배 증가한 수치. 같은 기간 매출은 4,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 영업손실은 2017년(417억 원)보다 64% 줄어든 390억 원을 기록. 오는 15일 전후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지난해 4조 중후반대의 매출, 8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티몬도 큰 폭의 적자 개선은 힘들 것으로 전망, 2017년 전년 대비 적자폭을 27.1%로 줄였으나 지난해 타임세일와 직매입 사업인 슈퍼마트와 티몬프레시 등을 강화한 만큼 영업손실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지난해 9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11번가의 경우 지난해 매출 6,744억 원, 전년 대비 862억 원 줄인 영업손실 678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달 공시하는 실적은 지난해 9~12월 4개월 간의 경영 실적.

## '웅진코웨이' 간판 첫 거래 0.11% 하락 출발 (매일경제 19.04.05)

6년 만에 '웅진' 이름을 되찾은 웅진코웨이가 무난한 주가 흐름을 보임.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웨이 주식은 웅진코웨이로 간판을 바꿔 달고 첫 거래를 마칩. 전날 9만4700원이었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1% 하락한 9만4600원으로 마감. 지난해 10월 29일 코웨이는 회사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4.91% 하락하며 6만3000원을 기록. 당시 코웨이 주가는 장중 6만1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지만 이후 주가가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달 27일에는 9만770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움. 웅진은 2012년 11월 코웨이를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매각한 이후 6년 만에 재인수함. 총 2조원을 투입하는 코웨이 인수계획에는 웅진그룹과 함께 한국투자증권,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

## 업종코멘트(4/8-4/12)

**유통, 화장품:** 1분기에도 유통업 실적은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슈퍼 등 전형적인 채널의 매출 둔화와 고정비 부담이 파악된다. 반면 면세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오히려 신규 매장 효과가 더해지며 3월 매출액은 최고치 경신이 추정된다. 이에 반해 화장품 및 렌탈 등 브랜드 제조업체들의 1분기 실적은 내수 채널과 일부 사업부, M&A 이슈 등으로 차별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209.61	3.22%	롯데쇼핑	0.84	-4.52	-4.77	GS리테일	-3.45	-0.40	-2.58
KOSDAQ	751.71	3.07%	현대백화점	-1.29	-4.59	1.32	코웨이	0.11	-2.37	0.53
유통업	424.55	1.04%	신세계	-4.59	-1.23	13.58	아모레퍼시픽	5.04	2.59	0.76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0.29	-3.11	-2.56	LG생활건강	-1.41	0.58	10.87
KRW/USD	1,135.50	-0.20	롯데하이마트	1.17	-3.36	-0.38	코스맥스	-8.58	-7.97	-5.78
KRW/JPY	1,017.06	-1.09	호텔신라	2.52	4.38	15.33	한국콜마	-7.04	-6.45	-6.68
KRW/CNY	169.00	0.15	현대홈쇼핑	-2.29	-4.48	-5.75	토니모리	5.02	1.87	-1.09
			엔에스쇼핑	-2.11	-4.53	-6.07	SK네트웍스	2.64	1.80	5.61
			GS홈쇼핑	0.84	0.45	-3.89	클리오	3.12	5.31	24.84
			BGF리테일	-0.23	1.87	5.83	코스메카코리아	1.50	-2.27	-5.96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1.7	0.4	2.0	노드스트롤	1.6	4.8	4.0	텐센트	3.0	6.3	8.4
로레알	-0.2	2.2	4.8	맥스&스펜서	0.3	5.6	6.8	알리바바	2.5	3.7	5.9
에이본프로덕츠	1.0	-5.4	10.8	다카시마야	-3.3	-4.5	-0.3	JD닷컴	-0.1	10.0	15.5
상해자화	-0.8	0.3	4.0	이온 물	-0.8	1.6	2.5	VIP샵	3.2	21.5	19.6
크리스찬디올	0.4	5.6	8.9	세븐&홀딩스	-4.0	-3.6	-9.9	스타트투데이	-3.1	-7.3	-11.9
P&G	0.0	1.7	5.3	아마존	1.3	3.6	13.4	이베이	0.4	3.1	5.4
고세	-0.7	5.4	9.5	월마트	1.0	0.7	1.3	메르카도리브레	-2.9	2.4	11.8
에스티로더	-0.8	2.2	4.8	테스코	1.7	1.8	3.7	라쿠텐	5.2	2.6	14.2
LVMH	0.8	5.8	9.9	타겟	1.2	3.1	6.8				
ULTA	0.3	5.0	15.4	까르푸	-0.2	1.7	-2.2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840.00	240.00	2.97	31.56	433.60	103.65	19,970.00	163.50	336.05	353.63
시가총액(백만USD)	28,070	150,927	1,314	3,154	87,785	259,289	10,831	59,050	190,367	20,795
매출액 (백만USD)	2017 8,964	29,400	5,716	953	49,330	66,832	2,738	13,683	48,167	5,885
	2018 10,009	30,532	5,488	1,077	53,242	67,164	2,999	14,557	53,524	6,700
	2019 10,566	32,295	5,183	1,196	56,905	69,386	3,201	15,524	57,222	7,542
	2020 11,445	33,980	5,239	1,353	60,729	71,839	3,436	16,524	60,876	8,332
영업이익 (백만USD)	2017 717	5,079	281	54	9,226	13,711	437	2,052	9,169	785
	2018 1,099	5,600	262	94	N/A	14,373	517	2,472	11,390	853
	2019 1,134	5,976	237	110	N/A	15,324	564	2,732	12,266	974
	2020 1,388	6,388	292	135	N/A	16,188	617	2,989	13,298	1,099
순이익 (백만USD)	2017 203	4,046	22	58	2,552	9,750	276	1,108	6,061	555
	2018 691	4,567	40	78	3,125	11,603	345	1,871	7,335	656
	2019 723	4,814	42	93	3,445	12,227	369	2,050	8,081	742
	2020 894	5,136	82	113	3,772	12,969	406	2,239	8,773	836
PER (배)	2017 95.6	27.1	9.1	63.6	24.2	19.0	41.5	31.6	23.0	26.1
	2018 41.8	33.7	63.2	40.2	28.5	23.3	29.7	32.4	26.4	32.5
	2019 39.1	31.4	27.2	33.1	25.9	21.8	27.8	29.3	23.8	27.5
	2020 31.8	29.4	15.6	27.3	23.6	20.4	25.3	26.5	21.9	23.7
ROE (%)	2017 5.6	14.5	N/A	7.3	18.4	18.3	17.6	24.4	19.4	33.4
	2018 17.3	15.6	N/A	9.0	20.2	21.4	19.6	40.4	20.6	35.5
	2019 17.0	15.3	N/A	10.0	19.9	22.2	18.7	47.1	20.6	40.9
	2020 18.7	15.3	N/A	11.2	19.5	23.2	17.8	47.7	19.8	44.5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45,64	283,30	1,421.00	1,813.00	4,086.00	1,837.28	98.83	236.90	80.94
시가총액(백만USD)	7,074	6,000	2,261	3,691	32,420	902,477	283,611	30,240	41,792
매출액 (백만USD)	2017 15,478 2018 15,971 2019 16,153 2020 16,494	2017 14,194 2018 13,636 2019 13,566 2020 13,612	2017 7,960 2018 8,275 2019 8,429 2020 8,581	2017 2,587 2018 2,847 2019 3,003 2020 3,108	2017 43,162 2018 60,879 2019 61,544 2020 62,640	2017 177,866 2018 232,419 2019 274,949 2020 324,631	2017 500,343 2018 514,135 2019 529,641 2020 545,914	2017 75,382 2018 83,930 2019 85,577 2020 87,455	2017 72,714 2018 75,288 2019 77,845 2020 80,245
영업이익 (백만USD)	2017 926 2018 932 2019 936 2020 976	2017 208 2018 796 2019 782 2020 786	2017 317 2018 272 2019 304 2020 323	2017 442 2018 480 2019 525 2020 546	2017 3,516 2018 3,721 2019 3,891 2020 4,042	2017 4,106 2018 12,290 2019 17,688 2020 25,589	2017 20,437 2018 21,984 2019 21,615 2020 22,201	2017 2,409 2018 2,695 2019 3,169 2020 3,466	2017 4,224 2018 4,131 2019 4,317 2020 4,481
순이익 (백만USD)	2017 437 2018 608 2019 608 2020 626	2017 34 2018 527 2019 525 2020 538	2017 212 2018 178 2019 200 2020 214	2017 274 2018 290 2019 319 2020 337	2017 1,626 2018 1,834 2019 2,078 2020 2,271	2017 3,033 2018 14,252 2019 17,965 2020 31,550	2017 9,862 2018 14,317 2019 13,659 2020 14,009	2017 1,581 2018 1,763 2019 2,174 2020 2,489	2017 2,914 2018 2,885 2019 2,977 2020 3,089
PER (배)	2017 16.9 2018 12.8 2019 12.1 2020 11.4	2017 168.9 2018 11.4 2019 11.9 2020 11.7	2017 16.1 2018 13.0 2019 11.6 2020 10.9	2017 16.7 2018 12.8 2019 11.7 2020 11.0	2017 21.8 2018 17.9 2019 15.6 2020 14.3	2017 256.6 2018 63.8 2019 50.2 2020 36.8	2017 24.1 2018 20.4 2019 20.7 2020 19.8	2017 16.9 2018 16.8 2019 14.0 2020 12.4	2017 15.6 2018 14.9 2019 13.8 2020 13.0
ROE (%)	2017 47.3 2018 54.3 2019 60.1 2020 75.4	2017 0.8 2018 14.0 2019 13.8 2020 14.0	2017 5.6 2018 4.4 2019 4.8 2020 4.9	2017 8.4 2018 8.6 2019 8.6 2020 8.5	2017 7.6 2018 8.0 2019 8.9 2020 9.1	2017 12.9 2018 27.3 2019 24.2 2020 25.0	2017 12.7 2018 14.1 2019 17.9 2020 19.2	2017 14.3 2018 10.6 2019 11.5 2020 11.8	2017 25.8 2018 24.2 2019 25.8 2020 26.2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6.74	376.00	185.35	31.24	8.65	1,933.00	37.84	502.85	1,060.00
시가총액(백만USD)	14,814	456,037	479,226	45,198	5,748	5,392	34,619	23,935	13,611
매출액 (백만USD)	2017 92,207 2018 86,675 2019 86,913 2020 88,989	2017 35,223 2018 46,510 2019 59,777 2020 76,106	2017 37,825 2018 55,915 2019 76,537 2020 99,282	2017 53,678 2018 68,615 2019 81,952 2020 95,680	2017 10,802 2018 12,584 2019 13,312 2020 14,055	2017 888 2018 1,127 2019 1,347 2020 1,576	2017 9,927 2018 10,730 2019 10,858 2020 11,527	2017 1,217 2018 1,435 2019 2,017 2020 2,803	2017 8,424 2018 9,928 2019 11,234 2020 12,660
영업이익 (백만USD)	2017 786 2018 2,167 2019 2,348 2020 2,644	2017 12,540 2018 15,377 2019 16,593 2020 20,833	2017 10,476 2018 8,753 2019 13,079 2020 17,978	2017 -124 2018 -592 2019 -25 2020 738	2017 399 2018 433 2019 525 2020 631	2017 295 2018 272 2019 339 2020 420	2017 2,264 2018 2,926 2019 3,034 2020 3,234	2017 56 2018 -76 2019 42 2020 171	2017 1,342 2018 1,434 2019 985 2020 747
순이익 (백만USD)	2017 -600 2018 854 2019 1,019 2020 1,314	2017 10,594 2018 11,409 2019 13,488 2020 20,757	2017 9,687 2018 12,937 2019 16,914 2020 21,414	2017 -23 2018 367 2019 842 2020 1,948	2017 289 2018 395 2019 459 2020 612	2017 182 2018 190 2019 237 2020 282	2017 -1,017 2018 2,287 2019 2,276 2020 2,621	2017 14 2018 -38 2019 27 2020 256	2017 986 2018 981 2019 569 2020 572
PER (배)	2017 N/A 2018 17.2 2019 14.4 2020 12.6	2017 44.5 2018 40.2 2019 33.5 2020 26.6	2017 45.1 2018 34.8 2019 27.9 2020 21.5	2017 N/A 2018 134.5 2019 55.1 2020 32.8	2017 23.8 2018 14.5 2019 13.5 2020 11.6	2017 43.9 2018 28.7 2019 22.7 2020 19.1	2017 30.4 2018 16.4 2019 14.2 2020 12.4	2017 197.1 2018 N/A 2019 584.7 2020 166.2	2017 12.9 2018 13.4 2019 21.8 2020 28.3
ROE (%)	2017 -5.2 2018 7.2 2019 8.9 2020 10.0	2017 33.2 2018 26.0 2019 23.3 2020 23.8	2017 19.9 2018 17.5 2019 17.0 2020 17.9	2017 -0.4 2018 0.2 2019 1.5 2020 5.7	2017 19.5 2018 12.8 2019 12.3 2020 12.3	2017 57.4 2018 54.9 2019 68.3 2020 58.9	2017 -10.9 2018 33.1 2019 57.7 2020 64.1	2017 3.7 2018 -13.6 2019 1.7 2020 5.9	2017 16.2 2018 13.6 2019 7.7 2020 5.2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